

요한복음 41 우리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가지로서 특권과 책임이 있다
요15:1-11

3년 반 공생애 마무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발을 씻겨 주시고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몇 가지 위로를 주신다.

1.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너희는 반드시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
2.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3. 위로자 성령님이 오신다.
4. 내 말들을 가지고 지켜라.

오늘 주님은 아버지와 자기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의 관계, 특별 관계를 맺는 성도들의 책임과 특권에 대해 말씀하신다. 오늘 2021년 세 번째 주일, 새 해 초반부, 올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까? 물론 당연히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이것을 정확히 알고 여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 < >, 우리의 신분, 가지의 의미, 특권, 책임 등

포도원과 포도나무

1-2절,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빵, 포도즙, 올리브, 우유 등이 필수품 포도나무는 대단히 중요한 식물, 해룻의 성전, 금으로 된 포도나무 장식, 요15에서 주님은 포도나무 이야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이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이다.

(*) 포도원과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치기 등을 살펴보자.

1. 포도원, 2. 포도나무, 3. 좋은 열매, 4. 예수님의 표현, 5. 포도나무 가지치기, 6. 실제 가지친 것, 7. 좋은 열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1. 포도나무

성경에는 세 종류의 포도나무가 있다.

1. 과거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시80:8-19; 사5:1-7; 렘2:21; 겔19:10-14; 호10:1 등)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짐(시80:8-19)

사5:1-7 설명, 하나님의 탄식, 나쁜 열매를 냈(5:4), 결국 폐망(5-6), 정체(7)

이스라엘은 한 국가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다.

그러나 우상숭배, 간음, 메시아가 옴. 그러나 그분을 거부함(요1:12).

2. 미래의 포도나무(계14:14-20)

천년왕국 이전의 7년 환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기 위해 세상 시스템이 포도나무처럼 무르익는다. 여기에는 불신자들이 가지로 남아 있다.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붙어서 주님을 대적하며 역시 우상숭배, 결국 창세 이후로 한 번에 가장 많이 죽는 일이 생김(14:20)

3. 현재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15:1), 나는 포도나무이다. 일곱 번째 I am.

그러나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true vine)

의미: 예수님 외에 다른 포도나무는 가짜요 모방품이다.

포도나무에는 여러 개의 가지들이 있다. 교회, 머리와 지체들과 비슷하다.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대단히 크고 강하다. 가지들이 워낙 강하게 붙어 있어서 가지를 자르다가 포도나무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 살아 있는 관계,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예수님은 포도나무

2. 가지들

가지 자체는 약하고 쓸모가 없다. 가지는 열매를 맺든지 불에 타든지, 포도나무 가지는 건축에 부적합(겔15).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생산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받는다.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연합과 교제

몸과 지체(고전12), 신랑과 신부(엡5:25-33), 목자와 양(요10).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 죽고 만다. 결혼은 연합을 가져오지만 매일 사랑을 유지하고 서로를 위해야 한다. 목자는 양을 때로 데려오지만 양은 살기 위해 반드시 목자를 따라다녀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 즉 주님의 교제,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5).

우리의 연합함과 무능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 거한다. abide, continue, remain, 1-11절 11번 거한다는 말의 의미: 그분과 늘 교제함으로써 그분의 생명 수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죄들의 고백이 필요하다(3). 또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9-10).

그분 안에 거할 때의 증거: 특별한 감정 환희 등 없다.

명백한 증거: 1.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2). 잠시 후에 열매에 대해 설명한다.

2. 아버지의 가지치기가 있다(2). 즉 징계가 있다.

3. 기도와 응답이 있다(7).

4. 동료 그리스도인들 사랑, 교회 사랑(9, 12-13)

자연계의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자연히 형성된다.

그러나 영적인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는 이것이 자동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예배, 말씀 읽기, 묵상, 기도, 헌금과 희생, 봉사, 성도들 간의 교제 등 교회의 중요성과 필요성

3.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

주님의 말씀, 아버지가 바로 농부이다(1).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 많은 열매를 내도록 가지를 잘라낸다.

열매에 대한 표현: 열매가 없음(2), 열매, 많은 열매(5, 8).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많은 열매, 그런데 대다수는 가지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포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지치기

숙련된 농부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여러 해 동안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죽은 가지 잘라내기, 산 가지 잘라내기(품질 좋은 포도 생산)

이렇게 해야 양과 질이 우수한 포도 생산

산 가지를 잘라내면 가지 입장에서는 아프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죽은 것 잘라내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종종 품질 향상을 위해 산 가지도 잘라낸다. 심히 힘든 과정이다.

1. 죄들로 인해(죽은 가지 치기)

2. 열매를 맺지만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산 가지 치기):

다윗을 보라. 13년 동안 가지치기 과정: 시119:71,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가지치기는 힘든 과정이다. 히12:5-7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가지치기 과정에도 아버지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신다. good, better, best, best를 내기 위해서는 good, better를 잘라낼 수 있다.

4. 열매

열매와 제품은 다른 말이다. 기계는 순식간에 제품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생명체는 열매를 생산한다.

열매는 대개 오랜 시간이 지나야 생산된다. 1년에 한 번 정도

가지는 열매를 생산하지만 자기가 먹지 않고 남이 먹는다. 즉 우리의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남편과 아내, 교회 모두 남을 위한 열매를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과 행위로 남을 먹이고 살려야 한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갈5:22-23), 찬양의 열매(히13:15)

여러 사람 전도하는 것도 열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인간 내부의 변화, 성품의 변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변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모방할 수 있다.

참 열매 안에는 그것을 재생산하는 씨가 들어 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자꾸 퍼져나가면서 여기저기서 재생산된다.

그런데 모방품은 씨가 없다. 그래서 반짝하고 죽는다.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로버트 솔러 번영 복음, 빈야드 부흥, 펜사콜라 웃음 부흥, 우리나라에도 헤브리터치 등, 이런 것들은 다 모조품이다.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모든 가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는 않아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15:8).

마5:16

5. 주의 사항

그리스도 안에 더 많이 거하면 더 많은 열매,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열매 가지처럼 버려진다(6-7). 이것을 구원을 잃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의 가지치기는 우리의 좋지 않은 품성, 행위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지 구원을 잃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구원은 영원하다(6:37; 10:28).

또 여러 목사들: 자기 교회를 떠나면 생명을 잃는다. 교회는 사람들, 사람들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교회나 목사가 잘못 하는 것을 보고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

그가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그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그 교회나 목사에게 붙어 있지 않다.

결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

우리는 가지, 이것은 큰 특권, 동시에 열매를 맺는 책임, 이 열매는 대개 성품의 변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런 변화가 있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2021년에는 내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수님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가장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바란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서 열매 맺는 사역을 하기 원한다.